

고려해운

1,860TEU급 신조선박 인수

고려해운(사장 전문준)은 한진중공업에 발주한 1860TEU급 컨테이너선박 1차선인 'KMTC SHANGHAI' 호를 2월 27일 명명식과 함께 인수해 말레이시아항로에 투입했다.

고려해운은 2002년 한진중공업에 발주했던 신조선박 2척 중 올해 먼저 인수되는 KMTC SHANGHAI호의 명명식을 2월 27일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KMTC SHANGHAI'호는 길이 187.3m, 너비 27.6m, 항해 속력 21.5Knots의 1860TEU급 최신형 풀컨테이너선으로 27일 인수 당일 중국 상하이를 경유하는 말레이시아항로에 투입됐다.

고려해운이 운영하는 말레이시아항로는 울산-부산-상하이-홍콩-포트켈랑-싱가폴-파시르구당-홍콩-상하이-울산에 기항하고 있으며, 이번 최신형의 신조선박 투입으로 보다 나은 대고객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전문준 고려해운사장은 명명식 기념사에서 "최신기술로 건조된 KMTC SHANGHAI호를 주력항로인 동남아항로에 투입함으로써 고객에게 보

다 차원 높은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최고 성능의 선박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시아역내 최강의 선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려해운은 KMTC SHANGHAI호에 이어 동급 신조선박 2차선인 KMTC PORT KELANG호를 올해 5월에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할 예정이다.

동남아해운

이승현 사장 부회장으로 승진선임

동남아해운(회장 양길용)은 3월26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승현사장을 부회장에 승진 임명하는 한편 엄종식전무(영업부문)를 부사장에 승진시키는 등 임원진의 승진 및 보직변경을 시행했다.

물류지원부문 담당임원인 권문규상무는 전무 승진과 함께 물류지원부문 및 기획경영부문, 안전품질관리, 전산개발 추진위원장을 총괄하게 됐으며, 컨테이너 영업부문의 박완식이사는 상무로 승진했다.

한편 심사팀장인 고주빈이사는 회계담당및 심사팀장을 겸하게 됐으며, 양정복 상무(기획경영부문)는 임기만료와 함께 해임됐다.

<임원직 승진 내용>

△부회장 이승현 △부사장 엄종식(영업부문) △전무이사 권문규(물류지원부문 및 기획경영부문, 안전품질관리, 전산개발 추진위원장) △상무이사 박완식(컨테이너영업부문)

<임원직 보직 내용>

△회계담당임원 및 심사팀장 고주빈이사

안진해운 . . .

중국서비스 대폭 강화

한진해운(사장 최원표)이 중국지역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한진해운은 4월부터 ▲상해/미 롱비치간 운송일수를 14일에서 11일로 대폭 단축하고 ▲상해/북미간 서비스를 주간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중국/북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이를 위해 ▲기존항로를 직항체제로 개편 ▲2개의 신규항로를 개설 ▲고속선을 투입하게 된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현재 닝보, 상해, 광양, 부산을 경유 북미로 운항중인 CAX항로(China America Express)를 5월1일부터 상해, 부산/북미 직항 체제로 전환해 상해/롱비치 운송일수를 14일에서 11일로 3일 단축한다.

또 고속선 투입 및 기항지 감축으로 선박은 5척에서 4척으로 줄여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수익성 강화도 함께 도모한다.

청도, 상해, 닝보 등 북 중국/북미 항로 강화를 위해서는 CUX노선(China US West Coast Express/북중국 쾌속서비스)을 4월14일부터 신규 개설해 닝보/롱비치 운송일수도 종전 16일에서 13일로 3일 단축한다.

이와함께 중국 코스콘(Coscon)사와 제휴 상해/롱비치간 셔틀 서비스(CLX항로:China Long Beach Express)를 추가 개설해 상해/롱비치간 주 2회 쾌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해/미서안간 서비스 회수는 주 2회에서 4회로 대폭 증가된다.

지난 1월부터 코스콘사와 함께 개설한 남중국/북미항로 SEA노선(South China America Express)도 쾌속 서비스로 재편, 안티안(심천)/롱

비치 구간을 종전 14일에서 11일로 3일 단축한다.

한진해운은 “이번 항로 개편으로 ▲중국 전지역으로부터 북미간의 운송 기간을 단축 ▲서비스 회수를 증대 ▲운송능력도 확대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게 됐다”라며 “기항지 직기항 체제로 전환하고 항로운영을 합리화해 선박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게 됨에 따라 원가 경쟁력도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또 “특히 물동량이 폭주가 예상되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라며 “쾌속 서비스 운영으로 대 고객 서비스 향상 및 향후의 불황에 대비하는 사전 준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항로인 태평양항로는 연간 물동량(미주항)이 920만TEU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중국 화물이 약 50%(49.7%), 홍콩물량이 14.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해운은 태평양항로에서 전세계 선사 중 시장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항로개편으로 한진해운의 중국 노선은 21개 항로에서 23개 항로로 증가 된다.

현대상선 . . .

28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현대상선은 3월25일 오전 8시30분 적선동 본사 지하강당에서 현정은 그룹회장을 비롯 노정의 사장 등 임직원 4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회사창립 2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3월23일 주주총회에서 미려한 제가 이사로 선임되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가슴에서 우러나는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 이사회 중심의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 주



주 중시 경영을 펼쳐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회장의 이번 행사 참석은 주총에서 현대상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한 감사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전하고, 현대상선의 동기이사로서 임직원들과 직접 만남의 자리를 갖고자 하는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현대상선의 노 사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결산을 통해 과거의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 클린 컴퍼니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창립 기념일을 계기로 올해를 현대상선의 ‘재도약의 원년’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20년 근속자 24명을 포함한 장기 근속공로자에 대한 시상과, 2003년도 우수선박 포상, 주니어보드 위원에 대한 사령장 수여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976년 3척의 유조선으로 창립한 동사는 28년만에 100여척의(2004년 3월 현재) 최첨단 선박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해운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한국선급(KR) ●●●

LNG선에 대한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선급(會長 李甲淑)은 3월18일 중국선급(China Classification Society : CCS) 본부에서 중국선급과 공동으로 LNG Carrier의 검사기술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는 한국선급에서 4명, 중국선급에서 3명의 연사가 참가했으며, 한국선급에서는 직접분석을 통한 강도평가 소개, 멤브레인형 LNG Carrier에 대한 강제 등급결정 절차 및 기준 소개, LNG Carrier의 멤브레인형 화물적부 시스템의 건조 및 검사 소개, LNG Carrier 화물 이송관의 응력 분석 소개, CFD 사용에 의한 hood room내의 유동 특성 분석에 대하여, 중국선급에서는 LNG Carrier에 대한 강도평가의 핵심기술 프로세스 소개, 멤브레인형 LNG Carrier의 피로 강도 분석, 멤브레인형 화물창에 대한 온도전이 기술의 분석 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조선업계에서의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이번 중국선급과의 공동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한국선급은 중국 해운 및 조선업계에 국제선진선급의 검사기술력을 직접 선보임으로써 중국에서 한국선급의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선급은 중국에서의 업무확장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선급과 상호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선급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갑숙 한국선급 회장은 중국조선공업협회(CCSC)를 방문하여 조선공업 협회장을 면담하고 한국선급과 중국조선소들과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